

20세기 미국 근본주의-복음주의 “제자도” 기원과 전개* - 미국 네비게이트 선교회 형성 및 국제화를 중심으로 -

손민석**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해방 이후 한국의 보수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 탄생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 복음주의 하위문화를 이해하는 한 가지 맥락으로, 미국 네비게이트 선교회 형성 및 국제화 과정의 변천사를 검토하는 것이다. 20세기 초 근본주의 단체로 출범한 네비게이트는 보수적 “제자도” 탄생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네비게이트 운동은 2차 대전 직후 냉전 시기 미국 패권의 논리와 상응하면서,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한다. 세계로 확산되는 와중에 네비게이트 국제본부는 다양한 도전을 마주하게 되면서, 1980년대 중반 기존의 제자도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미국 및 국제 네비게이트 변천사를 점검하는 것은 한국의 근본주의-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참조점이다.

주제어 :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미국적 영향, 네비게이트 제자훈련, 군사화된 근대성, 세계 기독교

* 본 논문은 원래 2015년 11월 7일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초고를 논평해 주신 이재근 교수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청년 기독교 학술 발표논문상으로 지원해 주신 기독교학문연구회 및 『신앙과 학문』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정치학 박사수료

2015년 11월 10일 접수, 2016년 1월 26일 최종수정, 2월 11일 게재확정

1. 머리말

해방 이후 한국의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 탄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 선교단체 운동이었다. 1970년대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BGEA)가 주관한 대형 집회와 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CCC)의 “전도 및 육성” 프로그램, 네비게이터 선교회(Navigators)의 “재생산과 일꾼배가” 신조 등은 이후 남한의 보수 개신교회 전역에 널리 확산되면서, 종교정치 지형의 일대 변동을 일으킨다. 당시 보수 개신교회의 교세확장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와도 결부되어 있었다. 보수 개신교계는 유신 정권에 협력하는 것이 민족 복음화 과업을 달성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준곤 한국대학생선교회 책임자는 “10월 유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 민족 신자화 운동”을 벌일 것을 박정희 정권에 건의했다.¹⁾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된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박정희 정부는 ‘국가주의적 덕성’을 함양하는 방안으로 보수 개신교계를 지원했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 복음주의 선교단체의 집회를 지원하는 것은 당대의 반체제 진보 개신교 민주 인사들을 무력화시키면서도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전할 수 있는 호재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수 개신교계의 “민족” 복음화 담론과 당시 정치적 지형에서 유통된 유신정권의 “민족론” 사이에는 반공주의를 매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군사화된 근대성의 국내정치적 맥락에 더해 더불어 미국 패권의 논리와 군인정신으로 충일한 ‘상명하복’ 제자도 개념의 전과라는 국제 맥락의 착종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고직환, 1995; 장규식, 유관지, 2006; 강인철, 2007; 김진호, 2012).²⁾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 개신교 교세 확산과 정치 역학관계에 영향력

1) 1973년 제6회 대통령조찬기도회에서 김준곤 목사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전 민족신자화운동이 전개될 경우 “10월 유신은 실로 정신사적 새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실로 『코리아』는 세계의 신화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1973: 2).

2) “군사화된 근대성(Militarized Modernity)” 용어는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한국현대사를 추적한 문승숙의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군사화된 근대성의 핵심 요소는 공산주의자 타자와 싸우는 반공주의 자아로서 한국을 구성하는 것, 훈육과 물리력으로 반공 국가의 구성원을 만드는 것, 산업화 경제를 군 복무와 결합시키는 것이다(Seungsook Moon, 2005[2007]: 46).” 반공규율사회 분석과 병영사회체제 담론을 제시한 조희연의 연구 역시 참조할 수 있다(조희연, 1998).

을 행사했던 미국의 복음주의 하위문화를 이해하는 한 가지 맥락으로, 미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형성 및 국제화 과정의 변천사를 검토하는 것이다.³⁾ 달라스 윌라드에 따르면,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제자도” 기원은 네비게이토 선교회에서 계발한 제자양육과 맞닿아 있다(Willard, 2010: 236). 20세기 초 ‘현대주의-근본주의’ 신학적 논쟁과 경제대공황의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창설된 미국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미 해군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근본주의 단체로 활동을 시작했다. 랄프 윈터가 “개신교 내의 예수회”로 호명할 정도로 네비게이토 초기 조직은 강력한 카리스마 지도자 중심의 위계질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19세기 말 “근육질의 기독교(Muscular Christianity)” 전통을 이어받은 것과 선교사역 대상이 군인들이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았다(Putney, 2001). 2차 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의 세계팽창 논리가 확산되고 냉전 체제 형성 시기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수정된’ 근본주의자로 알려진 신-복음주의 보수 진영에 간사들을 “대여”하면서, “제자도” 모델을 미국 외부로 “수출”하기 시작한다. 1960-70년대 미국 네비게이토는 독자적인 간사 계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복음주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현재는 멘토링과 일터선교, 젊은 지도자 계발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 종교정치 지형에 있어 복음주의 성장이 부각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네비게이토 형성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외양적으로 빌리 그레이엄 전도 협회, 대학생선교회 등과 같이 초대형 전도 집회 개최 및 정치 활동으로 세간의 주목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은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영국 옥스브리지 지성인들이 초기부터 참여한 국제복음주의학생회(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 IFES, 기독교학생회(IVF)의 국제 조직) 운동과는 달리 초기 네비게이토 리더십들은 ‘평범한’ 경건주의 실천과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별히 학문적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

3)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수 개신교회의 확산과 정치적 동학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층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60-70년대 교계에 보수적 복음주의 하위문화가 확산되는데 영향을 끼친 미국 복음주의 선교단체 운동은 이 가운데 한 가지 맥락만을 제시한다. 또한 본 글은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제자도 형성에 영향을 끼친 미국 네비게이토 형성사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병기해 둔다. 미국주의 모델에 영향을 받은 선교단체들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변용시킨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또한 캠퍼스 선교라는 특수사역 모델이 80년대 후반형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계 전반에 확산되면서 군사화된 근대성과 “기독교의 유년화(Juvenilization of Christianity)” 국면이 착종된 종교문화 및 정치적 함의를 추적하는 논의 역시 다음 연구주제로 미루어둔다(미국적 맥락에서 ‘유년화’ 담론은 Bergler (2012) 참조).

었다. 하지만 영화 <포레스트 검프> 주인공이 미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것처럼 “성경주의(biblicism)”와 “행동주의(activism)”를 나타내는 네비게이트 운동사를 추적하는 과정은 국지적인 한 흐름이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변천사의 주요 조류와 만나는 장면을 보게 한다(Hankins, Jr., 2011; 이재근, 2015). 초기 ‘근본주의’ 기독교 하위문화로 가지고 출범했던 네비게이트 운동은 세계 확산 과정에서 “제자도” 모델을 재편성하게 된다. 20세기 중반에는 활발하게 진행된 은사주의 성령운동과 조우하고, 1970-80년대에는 “사회정의” 이슈에 직면하면서, 기존의 획일화된 보수적 제자도 패러다임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지구촌 남반구(Global South)의 급성장과 함께 네비게이트 국제본부는 점차 “세계 기독교” 시대에 총체적인 제자도 개념을 재정립해 갔다.

네비게이트 선교회의 세계 확산 과정은 20세기 후반 풀뿌리 차원에서의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운동 궤적을 추적하는 한 가지 참조점이다. 군사주의 남성성에 걸맞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 낸 네비게이트 제자도의 한국 상륙은 전후 미국 패권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 냉전 초기 한국 네비게이트는 군사화된 근대성과 결부된 제자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로, 네비게이트 공식 출범은 해외미군 주둔지와 관련을 맺고 있다(Fairservice, 2007). 먼저 네비게이트 간사 덕 코자트(Doug Cozart)가 한국전쟁을 전후로 월드비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네비게이트 자료들을 번역하던 이창우는 코자트에게 성경암송 및 일대일 훈련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후 1960년대 초 남 장로교 선교사 베리 사라와 함께 대학생 성경읽기선교회(University Bible Fellowship, UBF)를 창설한다(Barry, 1991; Chung, 2003: 474). 또한 1963년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던 란 욱(Ron York)은 형제교회 소속의 유강식에게 네비게이트 선교전략을 소개하면서, 군인정신과 결합된 강성 ‘제자도’를 전파한다. 초기 미국 네비게이트 훈육체제에 영향을 받은 이들 조직은 1970-80년대 군부정권 시기에 한국 개신교 ‘급성장’에 기여하는데, 이는 교계 및 사회의 보수적 남성화 강화와도 연계된다. 이들은 군대 훈육 모델에 유교적 ‘후견주의(paternalism)’를 급진적으로 결합시켜 제자훈련 및 재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낸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회 및 선교단체 내부적으로 목회자 혹은 대표간사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로 복속시키고, 외부 사회적으로는 군사화된 체제에 훈육 받는 신민을 양성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위기’를 둘러싼 문제제기는 교계 일각을 넘어 한국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비단 일부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보수

개신교 지형에서 논의되는 “제자도” 개념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다. 문제 제기자들은 상명하복의 군사주의 “제자도” 훈련 모델이 투명한 소통의 배제 혹은 계급화 문제, 종교적 폐쇄회로 논리를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한다(박영철, 1990; 권영선, 2001). 권위주의적이고 후견주의적인 종교 에토스의 배타성은 비단 특정 선교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보수 개신교 전반의 위기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양희송, 2014). 한국 보수 개신교의 제자도 탄생에 네비게이트는 직, 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끼쳐 왔다. 이 단체는 강남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에 제자도 정신을 소개해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인 양육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선교단체였다(박용규, 1998: 123). 오늘날 한국의 보수 개신교회가 제시하는 “제자훈련” 모델의 공과를 성찰하는 한 가지 작업으로 북미 네비게이트 “제자도” 모형의 변천사를 점검하고자 한다.

II. 20세기 초 미국 근본주의와 네비게이트 제자도 탄생

네비게이트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근본주의 기관으로 출발한 선교단체이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성서의 초자연적 권위에 대한 근대 학문의 도전을 둘러싸고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1920년대에는 진화론 교육을 둘러싸고 “현대주의-근본주의” 분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근본주의적 보수파는 다윈주의와 고등 성서 비평학 등으로 전래된 신앙이 도전을 받게 되자, 현대 사조에 ‘적응’하는 현대주의자가 되기보다 “근본적인 것들(fundamentals)”을 수호할 것을 호소했다. 신학적 논쟁과 더불어 도시 빈곤 문제 등 사회개혁 문제 역시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세계를 근본주의적 보수진영과 자유주의적 혁신진영으로 갈라놓았다. 대체적으로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은 앞 세대 복음주의자 찰스 피니가 노예해방운동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높였던 전통과 달리 금주운동처럼 협소한 의제를 제외하고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었다. 부흥사 빌리 선데이 같은 인물은 당대 “사회개혁운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사회봉사로부터 종교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Marsden, 1990: 47). 보수파들이 도시 빈민 문제와 같은 사회 정의 쟁점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면에 놓인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영어권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무디가 전파한 “구명선

신학(lifeboat theology)”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무디에게 “이 세계는 파선한 배”에 불과했으며, 그리스도의 긴박한 재림 앞에서 유일한 관심사는 “구명선을 통해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영혼을 구해 내는 것” 뿐이었다.

교단 내 신학적 논쟁에서 근본주의자들의 입지는 현대주의자들에게 밀려나고 있었고, 사회정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근본주의 세력은 미국의 종교정치지형에서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로서는 서구 사회의 ‘세속화’ 물결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고, 20세기에 근본주의 교리를 수호하는 작업이 대중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불과 20여 년이 지난 20세기 중반부터 빌리 그레이엄 같은 근본주의 기관에 속한 이들이 “신-복음주의” 연합체를 구성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1920년대 말-1940년대 ‘방관하는 외부자’로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인 경제대공황 시기, 주류 교단으로부터 배제된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주목을 받게 된다(Carpenter, 1980).

1920-40년대에 교단에 속한 교회로부터 소외된 근본주의자들은 성경학교, 선교단체, 비즈니스 단체, 독립 선교 연맹체들을 출범시키기 시작한다. 20세기 초반 미국 종교지형에서 자발적 협회의 등장은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에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관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오랜 관례인 자원주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Tocqueville, 1835). 또한 근본주의자들은 공식적인 조직으로 묶여 있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신앙 수호와 전파를 위한 연대를 형성해 갔다(Hunsicker, 1998). 이들은 한편에서는 근대의 성서 비평학과 문화에 저항하고자 했지만, 단순히 수세적인 차원에서 외부자로 머무르지 않았다. 도리어 근본주의자들은 거점을 마련하여 경제대공황 시기에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면서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보수적인 방식의 문화 변혁까지 모색하고 있었다. 근본주의자들은 당시 미디어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따르는 방식을 통해 20세기 ‘소비사회’ 창출에 일조한다(Abrams, 2001).

근본주의자들은 한편으로 술, 댄스, 영화관 출입 금지 등 ‘세속적’ 엔터테인먼트에 대항하는 전투적 레토릭을 구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빌려와 광범위하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열망을 표출했다. 찰스 풀러(Charles Fuller)의 옛 부흥의 시간(Old-fashioned Revival Hour) 라디오 프로그램이 전파되고 있었고, 십대선교회(Youth For Christ) 단체 성공은 1940년대 이후 미국 복음주의 세계의 구심적

지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다(Marsden 1990: 86). 이들은 대중소비의 상품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따르되, 그 내용물은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 채워 나갔다. 뿐만 아니라 근본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긍정되었다. 경제 대공황과 영적 공황상태는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경제적인 난국을 신적 심판으로 연결 짓기도 했다. 경제 공황 시기에 친 자본주의적인 비즈니스 종교단체들의 출현은 대공황과 2차 대전 시기를 전후로 보수주의자들의 ‘경제신학’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Hammond, 2010).

미국 종교문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위한 근본주의자들의 준비시기에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탄생한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도슨 트로트맨(Dawson Trotman)이 속한 지역 교회는 현대주의-근본주의 논쟁에서 점차 자유주의 흐름에 동조해 가고 있었다. 성경 암송을 통해 회심을 경험한 도슨 트로트맨은 성경에 대한 즉각적 신뢰와 실용주의적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성경을 개인주의적인 ‘증거본문(proof text)’으로 사용하곤 했으며,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Skinner, 1974: 83-84, Glasser 1989).” 1930년대 초반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주장하던 교사들이 교회 리더십에서 제명되자, 도슨 트로트맨은 근본주의 캠프에 가담하게 된다. 그는 당대의 제도권 교회가 신학적으로 배교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개인 훈련’에 기초한 자발적 협회를 창설하는데 참여한다. 도슨은 제도권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독립된 협의체 구성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의 개척자적 모토는 “남이 할 수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Skinner, 1974: 80).

당대 근본주의자들의 “영혼 구원” 강조점을 공유하던 도슨 트로트맨은 네비게이토를 창설하면서 “영혼 구원” 접근만으로는 부족하고, “후속 계발(follow-up)” 과정이 뒷받침될 것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영혼 구원은 20분에서 몇 시간 정도면 된다. 하지만 회심한 이들이 올바르게 서도록 양육하는 데에는 20주에서 몇 년이 걸린다(Trotman, 2008: 31).” 체계적인 신자 양육의 공백 시기에 그것은 그리스도교 세계에 나타나는 “안이한 신념주의(Easy believism)”에 대한 반발이자 회심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그것은 회심과 변화된 삶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표준 모델이 존재하고 있고, “양육”이 뒷받침된다면, 외적 표준에 당도할 것이라는 신념이 내포되어 있기도 했다.

네비게이토가 상정한 외적 표준은 강인한 남성성 혹은 “근육질의 기독교”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했다. 도슨 트로트맨은 유약한 모습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그는 자신의 기관 간사들을 “패거리(gang)”들로 호명하면서, 거칠고 엄격한 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슨 트로트맨은 처음부터 군대 모형을 염두에 두고 “양육” 체계를 운영하는데, 그가 이끄는 초기 기관명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민병대(Minute Men)”였다. 1940년대 초 네비게이토 선교가 미 해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 근본주의 잡지 『더 킹스 비즈니스(The King's Business)』는 “군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 해군 사람들의 이야기” 기사를 내보낸다. 군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호 풍요화 과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 네비게이토에서 개발된 남성적 군사주의 제자도 모델이 추구한 비전은 세계복음화 프로젝트였는데, 이 비전은 기도와 성서 묵상, 친교와 ‘영혼 구원’, 양육과 “영적 재생산” 프로세스를 통해 성취된다고 간주했다. “영적 재생산”을 통한 세계 복음화 프로젝트는 원래 앤드류 머리의 착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00년 학생선교사 수련회에서 앤드류 머리는 “선교사 문제에 대한 열쇠”는 단순 증가(adding)가 아니라 승법증식(multiplying)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매년 1사람씩 배가한다면 당시 세계인구 기준으로 30여년 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짐 다우닝에 따르면 도슨 트로트맨은 앤드류 머리의 착상에서 양육의 중요성을 설교할 뿐 아니라 “영적 재생산”을 제자도와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영혼 구원’의 세계복음화 프로젝트를 강조하게 된다(Downing, 2011).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원제: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⁴⁾에서 근본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초기 네비게이토 제자도 개념에는 구조적 모순 혹은 사회경제적 차별에 대한 해소 국면이 소거되어 있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도시빈민 문제, 인종 문제를 비판하면서 전

4) 『크리스천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초대 편집장을 지낸 칼 헨리는 1947년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을 출간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는 개신교인들을 각성시키고 근본주의와는 구분되는 신-복음주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어판은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제목으로 2009년에 출간되었다. ‘(신) 복음주의’ 정체성을 내세우지만, 내부 동학을 살펴보면 여전히 ‘근본주의의 한계’에 갇힌 그룹이 적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 대한 출판 관계자의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개한 사회적 복음 운동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것이었다. 폴뿌리 차원에서 보면 네비게이토가 사회적 취약 계층과 접촉이 완전히 절연된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초기 네비게이토가 마주한 대상자 다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군에 지원한 이들이었다. 또한 1960년대 이전까지 미국 네비게이토는 훈련된 간사들을 “다른 사역(Other Work)” 기관에 “대여”했는데, 이는 다른 기관의 아젠다에 향후 개방될 가능성 역시 존재함을 의미했다. 일례로 월드비전 같은 인도주의 기관과 교류를 들 수 있다. 초기 월드비전은 구호단체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복음전도단체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었고, 네비게이토는 월드비전과 연대하고 있었다(King, 2012). 한국전쟁 당시 네비게이토 간사 덕 코자트 역시 월드비전에서 근무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 및 연대 정책으로 향후 제자도 개념 자체의 변동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 네비게이토 제자도 모형에 사회적 양심을 일깨우는 강조점은 없었다. 다른 근본주의자들처럼 자유주의자들의 “사회 복음”에 대한 알레르기 반작용에서 기인한 제자도 개념 때문이었다(이재근, 2015: 170-176).

구조적 모순과 사회경제적 정의 국면의 소거와 더불어 초기 네비게이토 선교사역은 반지성주의 에토스가 지배적이었다. 마크 놀이 지적한 것처럼 “행동주의적이고, 대중 추수전략에 경도된 운동의 긴급성에 지배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성 계발”에 소홀했던 20세기 미국 보수 개신교 에토스를 전형적으로 나타낸다. 당대 저명한 근본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신학 수업을 청취하기는 했지만, 도슨 트로트만의 활동가적 충동으로 인해 신학 수업은 중도에 포기된다. 또한 그의 성서 이해는 대중주의적인 ‘증거 본문’에 사로잡혀 있었고, 엄격한 신학 훈련과 세속 학문에 진지한 마주침이 없었다. 여기에는 고등교육기관 혹은 지성사회 현장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 직후 미 해군에 복무했던 이들 사이에서 시작된 선교현장에서 엄밀한 지적 도전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도 일조했다. 지성적 작업이 진지하게 요청되지는 않았던 반면에, 대중 차원에서의 근본주의자들의 신앙이 학문적으로도 승리를 거두었다는 논리는 전파되고 있었다. 20세기 초중반, 도슨 트로트맨은 여타 근본주의자들의 정서를 반영한 ‘대중주의적’ 창조과학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는 젊은 지구 창조론(Young Earth Creationism) 초기 지도자였던 해리 림머와 아서 브라운의 영향을 받아 근대 과학의 성취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작업 없이 성서가 “과학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곤 했다(Hankins, Jr., 2011; Lienesch, 2009).

Ⅲ. 전후 미국 보수 복음주의와 네비게이트 제자도 수출

1. 전후 냉전 정체성 형성과 네비게이트 제자도 확산

2차 대전 종식 직후 미국 지형에서 ‘외부자’로 간주되던 근본주의 그룹들은 이후 “(신) 복음주의”라는 개명된 이름으로 공적 영역에 등장하게 된다. ‘외부자’의 내부 사회로의 침투를 반복된 미국적인 특징으로 간주한 알란 윌프(Alan Wolfe)는 근본주의-복음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미국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근본주의자들은 한 때는 자신을 외부자로 간주했지만, 2차 대전 종식을 전후로 사회 깊숙한 곳으로 진입하고 있었다(Moore, 1986). 승전국 미국은 “자유진영”을 대변하는 명분으로 자국의 패권 질서를 전 세계로 확장해 간다. 미국팽창주의 논리와 함께 미국 근본주의 그룹의 “제자도” 역시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되기 시작한다(Brouwer, 1996).⁵⁾

속류적인 오해와 달리 “영혼 구원”의 복음에는 내세적 국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현세에 가장 주요한 과업, 곧 지상사명으로 “영혼 구원”, “양육”을 제시한다. 이는 효과적인 “지상사명 성취”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정치경제적 유착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을 의미했다. 초기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가 미국과 이후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 근저에는 냉전기 미국의 미디어 정치 맥락이 존재하고 있었다. 가령 1950년대 냉전정체성이 형성될 때 빌리 그레이엄은 공산주의를 “적-그리스도”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었다(Bruns, 2004 ; Lahr, 2007). 동시에 복음전도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빌리 그레이엄은 선교의 맥락에서 테땅트 시기 미-중 관계를 새롭게 여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하기도 했다(Showalter and Yichao, 2010; Schäfer, 2013). 네비게이트는 공세적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보수적 복음주의 운동의 한 축에 속해 있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와 더불어 냉전 정체성의 하위문화를 형성한 보수적인 종교

5) 제한된 지면상 빌리 그레이엄, 빌 브라이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외에 미국 복음주의와 냉전 시기 미국 패권질서의 관계를 상세히 논의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정치적 복음주의의 냉전적 기원에 대해서는 Lahr (2007) 참조. “미국제 복음의 수출” 담론에 대해서는 Brouwer (1996), Noll (2009) 등 참조.

그들은 1951년 창설된 대학생선교회(CCC)였다. 창시자 빌 브라이트(Bill Bright) 역시 매카시즘의 열풍 속에서 “그리스도나 공산주의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60년대 후반 진보적 학생운동이 발흥했을 때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보수적 대항 담론으로 “영적 혁명” 논리를 전파했다.

빌리 그레이엄과 빌 브라이트 사례가 보여준 것은 20세기 중반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을 해소하는 공동전선을 형성한 것처럼 보인 신-복음주의 세계는 사회사 관점에서 보면 대중 지도부는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우 편향된 연합이었다. 초기 복음주의 세계가 칼 헨리(Carl Henry)의 신학적 지도력 등에 힘입은 느슨한 연대 이면에는 2차 대전 직후 미, 소 냉전 정체성 수립 맥락이 있었다. 그것은 전 지구적 냉전구도로 형성된 20세기 중반 북미 복음주의자들의 사회적 상상 안에 ‘좌파적’ 근대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이 기반이 된 일시적인 공동전선이었다. 1960-7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권 운동과 베트남 반전운동을 계기로 복음주의 세계에서 보다 진보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복음주의 공동전선에 균열이 생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복음주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카고 선언을 둘러싸고, 시니어 그룹에 속한 칼 헨리와 주니어 그룹의 짐 월리스(Jim Wallis), 로널드 사이더(Ronald Sider) 등이 의견 충돌을 일으킨 점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잘 드러난다.

네비게이토는 미국 패권의 논리와 상응하면서, 다른 선교기관과 협력하면서, 제자도 모델을 수출하기 시작한다. 도슨 트로트맨은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 국면으로 접어들던 1944년 말에 이르자 “전후 세계에서 미국의 책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Skinner, 1974: 363).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세계복음화를 위해 교회는 젊은이들이 복음전파와 양육이 가능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에 파송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ankins, Jr., 2011: 87). 네비게이토를 포함한 미국의 보수적 선교기관들의 세계 복음화 비전이 비단 2차 대전을 전후로 형성된 미국 패권 논리만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선교의 세기”로 호명되는 19세기 부흥주의 영향을 받은 네비게이토는 운동 초기부터 세계복음화 비전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비게이토가 본격적으로 세계무대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진주만 공습 이후 미 해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이후부터였다. 함정에 승선하고 있던 미 해군 사이에서 전파된 네비게이토 ‘제자도’는 전쟁 종식 이후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후 다른 기관에 간사를 “대여”

하거나, 한국의 경우처럼 해외주둔 미군 기지를 거점으로 군인정신과 결합된 방식의 ‘제자도’가 세계로 전파되어 갔다(Weinstein and Seay, 2007: 44; Loveland, 1996).

초기 네비게이트 ‘제자도’ 모델의 해외수출은 주로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국제복음주의학생회(IFES) 창립 컨퍼런스에서 도슨 트로트맨이 ‘제자도’를 강연한다. 19세기 말 영국 옥스브리지에서 시작된 국제복음주의학생회는 1947년 “복음전도, 제자도, 세계선교”를 모토로 10개국 연합 창립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초대 국제총무 스테이지 우즈(Stacy Woods)가 네비게이트 “제자도”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MacLeod, 2007: 109). 이후 도슨 트로트맨은 1948년 1회 유럽 컨퍼런스 강연과 일본 기독교학생회 간사훈련에 참여하는 등 국제복음주의학생회 운동에 관여한다(Skinner, 1974: 426; Hankins, Jr, 2001: 113). 또한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 WBT) 창시자 카메론 타운젠트(Cameron Townsend)는 찰스 풀러의 라디오 방송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위클리프 선교회는 “타문화권에서 언어를 번역”한다면, 네비게이트는 “제자훈련”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도슨 트로트맨은 초기 위클리프 이사회 일원으로 간사들을 훈련시키게 된다(Svelmoe, 2008: 296; Hankins, Jr., 2011: 103). 이 밖에도 동양선교회(Orient Crusades) 창시자 딕 힐리스(Dick Hillis)의 요청에 따른 네비게이트 간사들의 아시아 파송 역시 네비게이트 제자도 모형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

네비게이트 제자도 모형이 보다 폭넓은 대중들에게 전파된 계기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와 대학생선교회(CCC)와 제휴 관계를 통해서였다. 네비게이트는 1950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가 창설되기 전부터 빌리 그레이엄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 도슨 트로트맨은 1948년 스위스의 비텐베르크에서 열린 십대선교회(Youth For Christ) 주관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빌리 그레이엄과 공모하고 있었다. 당시 빌리 그레이엄은 노스웨스턴 칼리지 학장직 수락 여부를 두고 도슨과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후 노스웨스턴 칼리지 “양육” 과정을 신설해서 네비게이트 간사가 담당하는 제휴관계를 맺게 된다(Skinner, 1974: 429-430). 1949년 LA 집회로 미 전역에서 주목을 받은 빌리 그레이엄은 독자적인 전도단체를 설립하게 되는데, 네비게이트는 초기부터 “상담자 훈련” 및 “양육” 커리큘럼 개발을 담당한다.

대학생선교회의 “전도-육성-파송” 모델 역시 창립 초기부터 네비게이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네비게이트 제자도 모델은 설립자 빌 브라이트의 정치적 보수성파도 공명

하는 것이었다. 당시 네비게이트 제자도 개념은 “구조적 모순과 사회 정의” 국면이 공식적으로는 침묵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우편향’되어 있었다. 빌 브라이트는 대학생선교회 창립 초기 “영혼 구원” 이후 양육 지침을 자문하고, 도슨 트로트맨은 대학생선교회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6개월 동안 “양육” 모델에 관여한다. 빌과 보네트 브라이트 부부에 따르면 대학생선교회 창설 당시 “사용가능한 유일한 양육 교재는 네비게이트로부터 나왔다(Turner, 2008: 60; Hankins Jr., 2001: 147).” 아울러 “대여된” 네비게이트 간사들이 대학생선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네비게이트 모델은 미국 캠퍼스 전역에 퍼지게 된다. 1958년부터는 네비게이트 역시 리로이 아임스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대학 캠퍼스 선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학생회, 대학생선교회, 네비게이트 등 향후 미국 대학가에는 보수적 복음주의 종교성이 확산되게 된다(Hageman, 1995).

한편 『크리스천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창간연도인 1956년, 도슨 트로트맨 사망에 따른 네비게이트 내부 리더십 이양은 이전과 다른 방식의 제자도 모델과 접촉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가령 6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권 운동의 여파가 반영된 진보적 제자도 모형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도 있었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권 내부에서도 짐 윌리스 같은 이들이 점차 “사회적 회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혹은 국제복음주의학생회 운동의 신학 지도자들과 엄밀한 학문성은 결여되었지만 문화비평가로 활동한 프랜시스 웨퍼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점증하고 있는 “기독교지성”으로의 호소로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대중화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처럼 당시 미국 네비게이트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저항 국면이나 반지성주의를 배격하는 기독교지성운동의 중요성은 소거된 채 경건주의 모형을 유지해 간다. 네비게이트 제자도의 변화는 향후 선교현장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기존 패러다임 설명력의 임계점을 넘게 되는 시기로 미루어진다.

2대 회장으로 취임한 론 세니(Lorne Sanny)는 도슨 트로트맨의 경건주의-근본주의 강조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나아가 론 세니는 네비게이트 역량을 대중 집회 참여보다 소수의 일꾼 징모 및 배가에 더 집중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리더십 스타일에 있어 도슨 트로트맨이 모험가 기질이였다면, 론 세니는 경영자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기관 내부조율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꾼들이 있음을 주지시키면서도, 영적 재생산이 반복 가능한 간사 계발을 정책방향으로 결정한다(Scott, 2006: 592-599). 1960-70년대 미국 네비게이트 어젠다는 선교에 대한 긴박성과 세계복음화를 성취할

수 있는 미국 “제자도”를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었다. 이후 세계주요 거점에 네비게이토 간사를 배치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제자도’ 모형은 선교사 파송을 위한 “자원 공장(resource factory)”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공장의 생산라인(assembly line)” 역할을 담당한 미국 네비게이토 사역은 점차 대학 캠퍼스로 확산되고 있었다.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에 당도하기 위한 “배치와 생산(Positioning and Production)”에 초점을 맞춘 미국 간사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해외로 파송되면서, 네비게이토는 국제화되기 시작한다(Scott, 2006). 이 시기 출범한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 지구촌 남반구 네비게이토들은 한 세대 뒤 1990-2000년대 국제본부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역으로 미국의 네비게이토 “제자도” 모형을 재 정렬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2. 미국 네비게이토 제자도 수출 과정에서 제기된 도전들

미국 네비게이토 “제자도” 모형이 세계로 수출되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제기되었고, 이 가운데는 향후 “제자도” 모형을 변형시키는 요소들도 존재했다. 이 가운데 복음주의 전통의 세계 확산의 흐름과도 연결된 쟁점으로는 50-60년대 은사주의 운동, 70년대 초중반 선교단체 정체성, 70년대 중후반 복음과 사회정의 관계와 관련된 도전들이었다. 초기 해외선교 시기에 제기된 첫 번째 도전은 은사주의 운동(Charismatic Movement)과의 만남으로 촉발되었다. 1955년에는 도쿄 네비게이토 간사들이 은사주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내부긴장이 조성되었다. 도슨 트로트맨은 모친이 20세기 초 고전적인 오순절 운동(Classical Pentecostalism)에 속해 있었지만, 그 자신은 오순절 신앙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Skinner, 1974: 43; Hankins Jr., 2001: 85). 1950-60년대 다양한 교단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은사주의 운동이 발흥하기 시작했을 때, 은사주의 운동에 접촉된 도쿄 네비게이토 간사들은 네비게이토에서 떠나야 했다. 네비게이토 내부의 초기 ‘결정 국면’은 1970년대까지도 은사주의 운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적 관성’으로 작용한다(Scott, 2006: 223-226). 그 여파로 1960년대 네비게이토 본부 주요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던 은사주의자 찰스 파라(Charles Farah, Jr.)는 네비게이토를 떠나게 된다. 이후 파라는 오순절 교단에서 “믿음의 말씀 운동(Word of Faith Movement)”이 정점에 오를 때 강력한 내부 비판자로 활동한다. 성경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에 강조점을 둔 네비게이토 리더십으로 활동했던 파라는 은사주의자들이 주관적 체험에 지나

치게 경도되었을 때, 체험하는 말씀(‘레마’)이 신적 주권과 객관적인 말씀(‘로고스’)과 균형을 맞추지 않을 경우 그것은 성서적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성서적 믿음 안에서 신적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와 조작적 행위를 통해 인간이 통제하려고 하는 주술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Farah, Jr. 1979). 찰나적이고 주관적 체험에 대한 경도현상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찰스 파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까지도 네비게이트 본부 공식지침서는 방언과 같은 은사 체험을 네비게이트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제한한다(Sanny, 1974).

네비게이트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또 다른 도전은 선교단체 기관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었다. 초기 간사들이 다른 기관에 “대여”되는 방식으로 전파된 1950년대 네비게이트와 달리 1960년대 독자적인 조직으로 확장되면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교회론과 관련된 선교단체의 정체성 물음이 제기되었다. 자원단체들이 세계선교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져가자 교권주의자들이 선교단체의 정통성에 의구심을 표명한 것은 비단 네비게이트 단체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Winter, 1974). 하지만 네비게이트 역시 20세기 초반 주류교단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타락’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범한 근본주의 단체로서 “반 제도교회” 특징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뚜렷했다. 초기 네비게이트 제자도 모델에는 지역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간과되고 있었다. 네비게이트가 독자적인 기관으로 확장되는 시점에서 론 세니는 네비게이트 정체성과 제도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정립한다(Sanny, 1974). 먼저 국제본부는 지역교회 뿐 아니라 선교단체 역시 신적으로 위임된 제도로 간주하면서 네비게이트의 정체성을 지역교회 제도와는 구분되는 신적 권위에 따른 정통성 있는 기구로 이해했다. 여기에는 초기 네비게이트 사역에 참여했던 랄프 윈터(Ralph Winter)의 “교회의 이중구조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제시했다(Winter, 1974; Sanny, 1974). 동시에 지역교회 구조는 “성서적 진리의 터이자, 공적 예배의 자리”이며 네비게이트는 세례와 성찬 등 성례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네비게이트 간사들은 각자 지역교회 예배에 단순히 정기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교회 속에서 최소한 자신의 역량에 맞는 직책을 한 가지 이상 수행하면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독려되었다(Downing, 2005). 론 세니는 지역교회에 대한 네비게이트의 최선의 기여는 “자격을 갖춘 질적 일꾼들(qualified laborers)”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기관의 “이중구조론”을 존중하면서, 선교단체 네비게이트는 한편에서는 지역교회에 예속되지 않는 자기정체성을 지니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교회화 작업을 추구하거나 지역교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계속 뿌리내리는 지역교회화 작업에 머무르는 것은 기동성 있는 선교단체의 소명과 초점에서도 벗어난다고 보았다.

선교단체 정체성과 교회론의 문제는 한국의 맥락에서도 유의미한 쟁점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1978년 한국 팀 회장이 교체되면서, 한국 네비게이토는 1차 분열을 경험했다. 유강식 한국 네비게이토 1대 회장은 원래 딕 욕(Dick York) 선교사에게 수학하고, 자신의 ‘제자’ 하진승 간사와 함께 형제교회에 속해 있었다(박준형, 2002; 김진호, 2014). 1970년대 중후반 유강식은 형제교회 전통을 전유하면서, 네비게이토 단체를 지역교회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다. 유강식이 국제본부 정책에 배치된 입장을 고수하자 국제본부는 1978년 한국 네비게이토 회장을 하진승으로 교체한다. 이 과정에서 유강식은 네비게이토 간사들 일부와 제자선교회를 설립하고, 형제교회 전통의 서울교회를 창설하는 데 가담한다. 교회론 충돌 사건은 이후 한국 네비게이토 특유의 “제도적 관성”을 산출했다. 한국 네비게이토는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와 같은 지역교회화 작업을 공식적으로는 배제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개별 멤버들이 예배 참석으로 지역교회와 관계를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유지한다. 아울러 캠퍼스 간사 순환 체제를 시행했던 미국과 달리 캠퍼스 간사의 정착 체제를 유지시킨 한국 팀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동성보다 지역성을 띠는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⁶⁾

미국 네비게이토의 전통적인 제자도의 모형이 받게 된 세 번째 도전은 1974년 1차 로잔세계복음화대회 이후 폭넓은 기독교 세계와의 조우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개인적 제자도 모형을 넘어 사회경제적 불의에 대한 저항과 같은 사회정의를 결합시킨 ‘총체적 제자도(Holistic Discipleship)’의 도전이었다. 1970년대 네비게이토 국제 필드디렉터를 역임하면서, 해외 전략을 구상했던 월드런 스코트(Waldron Scott)는 로잔세계복음화대회 발표 이후 세계복음주의협의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 WEF)로 “대어”되어 최초의 상근 책임자로 활동하게 된다(Randall, 2015: 214; Stanley, 2013:

6) 한국 본부 차원에서 목회자 대상의 교회제자훈련원 채널을 열어두었지만, 네비게이토 제자도가 한국 보수 개신교 대중들에게 폭넓게 확산된 배경에는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사랑의 교회 영향이 있었다. 옥한흠은 지역교회에 대한 초기 한국 네비게이토의 ‘반-제도주의’ 입장에는 의견을 달리 했지만, 그 외 제자도 모델은 긍정하고 있었다. 그는 유학 시절 국제본부를 방문하고 귀국한 이후 네비게이토 모델을 지역교회 실정에 맞게 변용시키고, 강남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를 거점으로 “제자훈련”을 확산시켰다(박용규, 1998).

125). 스코트는 총체적 제자도 개념을 수용하게 되고, 1970년대 중후반 보수적 복음주의 제자도 개념과 진보적 사회정의 의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해외선교와 제자삼기, 사회정의” 삼각구도를 제시한다(Scott, 1980). 하지만 스코트의 주장은 미국 팀 회장 잭 메이홀(Jack Mayhall)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로잔대회 이후 “복음에 대한 상충하는 비전” 혹은 복음과 사회정치적 변혁의 관계를 묻는 물음과 관여되어 있었다. 메이홀은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를 향한 초점을 명확하게 할 것과 네비게이트 과업은 ‘영혼구원과 제자양육, 일꾼 배가’ 선교사역임을 주장했다. 스코트 역시 해외선교와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는 도슨 트로트맨이 중동으로 파송한 초기 해외선교사였을 뿐 아니라, 미국 네비게이트 캠퍼스 선교를 개척한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의 저자 리로이 아임스(LeRoy Eims)의 멘토였다. 메이홀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스코트는 정치사회적 지평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음 선교사역을 내세주의 혹은 ‘영혼 구원’으로 축소 혹은 은폐시키지 말고, 복음과 제자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를 촉구했다. 1970년대 후반 네비게이트 내부 정치에서는 복음의 정치경제적 지평을 주장한 스코트 입장이 패배했다. 메이홀의 “영혼 구원” 비전의 승리는 실제적인 경제제재 조치로 이어졌다. 메이홀을 중심으로 한 미국 리더십은 스코트가 미국 네비게이트 팀으로부터 간사 직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네비게이트 정신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980년 네비게이트 본부는 스코트를 네비게이트 간사 직에서 ‘제명’하고, 스코트는 개인 신상을 이유로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총무직 역시 사임하게 된다.⁷⁾ 총체적 제자도로의 이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변화된 도전에 마주한 다음 세대 지도부 몫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7) 스코트는 자서전에서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총무직을 사직한 “진짜” 이유는 이중생활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결혼생활의 파경과 공적 직무 중단을 연계시킨다. 그는 개인의 혼외관계와 공적 선교에서의 변창 사이에 일어난 내면의 긴장을 서술해 간다(Fairservice, 2007 ; Scott, 2006: 776).

IV. 세계 기독교(Global Christianity)의 출현과 네비게이트 “제자도” 재편성

1. 세계 기독교의 출현과 총체적 “제자도” 패러다임

20세기 초 미국에서 창설된 이래 네비게이트는 1960-70년대까지 전통적인 경건주의-근본주의 제자도 모형을 고수했다. 또한 1974년 로잔대회 어젠다가 풀러 그룹 중심의 “미전도 종족” 해외선교와 남미 그룹 중심의 “사회정의” 총체적 선교로 분화될 때도 네비게이트 본부는 전자 그룹과 친화성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1980-90년대를 경유하면서, 네비게이트 제자도 모형은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구촌 남반구에서 네비게이트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후 남미 혹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들이 국제 본부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리더십의 인적 구성 변화가 요인이 되기도 했다. 20세기 후반 기독교 세계에서 지구촌 남반구의 영향력 확대는 네비게이트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지구촌 남반구 특히 아프리카 선교 현장은 총체적 제자도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었다. 국제 본부는 점차적으로 복음의 가치 안에 사회경제적 모순을 퇴치하는 관념을 포함시키게 된다. 빈곤과 죽음의 현장에서 선교사역을 지속해야 하는 아프리카 현실에서 “고통과 불의 앞에서 중립을 지키는 삶”을 고수하는 방식은 성서의 정신과 대립될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아프리카 네비게이트는 빈곤층을 위한 지역 계발 단체인 “미션: 산들을 움직임(Mission: Moving Mountains, M: MM)”과 통합하고 “계발을 향한 제자 삼는 사역(Discipling for Development)”을 추구해 갔다. 이처럼 국제 네비게이트 본부는 1990-2000년대를 지나 는 와중에 전통적인 보수적 경건주의 제자도를 넘어 사회적 지평에 대한 총체적 제자도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른다. 1970년대 후반 내부 논쟁에서 월드런 스코트가 제시한 구조적 불의에 저항하는 복음 테제가 기각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제 네비게이트에서 글로벌 부정의, 빈곤퇴치 등에 관한 관심의 환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속한 것이었다 (Kalu, Lyons, and Ridgway, 2013).

복음의 사회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국제 환경의 배경에는 남반구 기독교의 지형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 선교 현장의 변화요인도 존재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캠퍼스 선교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했다. 타임지가 1976년을 “복음주의자의 해”로 호명할 정도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는 종교적 우파의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이 청소년/대학 세대들은 전통적인 보수적 신앙 관점과는 궤를 달리하기 시작했다. ‘문화전쟁’에 활발하게 참여한 부모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은 손상된 가정과 사회에서 소모품 취급을 받는다고 간주하면서 전통 신앙에서 버리거나, 이후 1990년대 ‘이머징(emerging)’ 신앙운동 방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 운동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네비게이트는 1980년대 초 변화의 흐름을 일선 대학 캠퍼스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하고 있었다.

또한 군인정신의 훈육과 해외 선교 ‘생산라인’에 동원된 네비게이트 제자도 방식이 1960-70년대 급속하게 성장세를 나타냈다면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 참여 및 간사 계발이 현저하게 감소되기 시작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외면적인 훈육을 반복 숙달을 계속하는 포드주의 시스템 안에서 탈진되어가는 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도부는 일상의 삶과 신앙을 전인적으로 통합시키기보다 과도하게 “영적 재생산”과 선교의 생산라인을 편향적으로 특권화한 나머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억압이 발생하는 등 부조리와 폐단을 대면하기 시작했다. 이사회가 위축한 외부 컨설팅과 본부 리더십의 자기갱신과정에서는 해외선교와 “일꾼배가”를 위한 간사 계발 정책이 목회자/대표간사 중심의 관료주의 체제를 산출하고, 일반신자들의 일상생활을 주변화 시키고 있음이 지적되었다(The Navigators, 2009).

해외선교 정책 팀 역시 미국에서 계발된 “제자도” 모형을 고정시켜 둔 채, 해외에서는 효과적인 ‘이식’ 전략에 몰두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1960-70년대에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 현장 적응 실패 등 ‘패배감’에 사로잡혀 해외에서 미국으로 복귀하던 상황이 고려되고 있었다. 미국 본부는 전쟁 참여 세대들이 전후 기관의 토대를 쌓고, 전망개척선교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1980년대 리더십 세대에 주어질 소명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결정한다. 2차 대전을 전후로 한 도슨 트로트맨 이미지는 세계정복을 기획하는 군대 사령관이었다. 그는 “명령만 내리면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자기충천한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책임이 바뀌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갈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갔다(Skinner, 1974, 502).” 하지만 해외 책임 선교사들은 사령관 모델이 점차적으로 선교의 가시적 결과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구성원들을 압박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3대 국제회장으로 임명된 제리 화이트(Jerry White)의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은 네비게이트 제자도 패러다임 전환

에 있어 ‘비공식적인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후 네비게이트 리더십들은 개인의 상실 경험을 넘어 사회적 범죄, 부패의 문제, 경제적 재난 등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기 시작했다. “상실의 경험을 통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혼돈의 세계로 더 이끌려 가고, 만신창이가 된 현실의 혼돈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되묻기 시작하게 된다 (White, 2002; The Navigators, 2009).

국제본부는 현장 간사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1960년대부터 공식화시켰던 미국 네비게이트 “제자도”의 일방적 이식 모델을 재고하기 시작한다. 복음을 미국화 된 틀 안에 가두지 않으면서, 다양한 선교 현장에 적절하게 조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물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동시에 문화를 넘어 연합 정신을 정립하기 위한 성서의 근본정신에 관한 해명 작업이 요청되고 있었다. 본부는 『글로벌 사회(Our Global Society)』 정책을 구상해 가면서, 점차 폭넓어지는 현장의 실제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통의 목적을 위한 자원하는 파트너십”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게 된다. 국제본부는 기존에 강조되던 간사 중심 체제에서 일터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내부자(insider)”로 균형추를 옮겨 가기 시작한다(Stokes, etc. 2006). 이는 간사 중심 구조가 초래하는 경직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지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와 세계 교회의 주요 이슈, 그리고 네비게이트 내부에서 변화되는 환경에서 생동하는 운동성(movement)을 재고하기 위함이었다. 간사훈련에서는 점차 군사주의 모델에 기초해서 외면적인 훈육을 도모하는 사령관 모델만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제자도를 돕는 산과 모델이 강조되고 있었다.

본부 정책 변화는 미국 네비게이트 출판부 출간흐름으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출판부는 본부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Inside Out)』 개념에 호응하고, 1980년대 “상담혁명” 트렌드에 상응하면서, 영성과 심리학을 통합하는 래리 크랩(Larry Crabb), 게리 콜린스(Gary Collins) 등의 저작물을 내어놓는다. 또한 “영웅주의” 멘토링 모델을 비판적으로 숙고한 제임스 휴스턴(James Houston) 저작을 출간하기도 한다. 일상 영성에 대한 미국 네비게이트의 관심은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의 『메시지(The Message)』 성경 프로젝트에서도 잘 드러나게 된다. 더불어 기관 창설 초기에 영향 받은 케직 성경운동 고리나 제리 브리지스(Jerry Bridges) 등이 제시한 전통 개혁과 훈육 모델 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 관점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다양한 영성저작 탐독이 독려되었고, 미국 팀의 경우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연

대(Evangelical and Catholic Together)>에 관여하기도 했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가 책임 편집인으로 참여하고 J. P. 모어랜드(J. P. Moreland), 마이클 윌킨스(Michael Wilkins) 등이 함께한 영성형성라인 시리즈 역시 이 시기에 기획되었다. 인문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네비게이트 출판부를 통해 『마음의 혁신(Renovation of the Heart)』을 출간하고 간사훈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본부 정책의 중심축을 목회자/간사 계발에서 일반인 삶의 현장의 문제로 침투해 가면서, 경제 및 경영의 문제 역시 중요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출판부는 일터 사역에 대한 강조점과 더불어 “시장 경제 속의 그리스도인” 이해를 위해 리처드 츠잉(Richard Chewing)의 경영/경제 4부작을 출간한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 본부 부회장 도널드 맥길크리스트(Donald McGilchrist), 짐 피터슨(Jim Petersen) 등이 국제상업네트워크에서 발간한 『상업의 성서적 뿌리(Scriptural Roots of Commerce)』 시리즈에 참여하게 된다.

제리 화이트 리더십 아래에서 반지성주의적 창조과학운동 지지로 출발했던 네비게이트 단체 성격 역시 공식적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냉전 우주계발 시기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계획의 중심 기지였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미션 컨트롤러 임무를 수행하고, 미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공학 교수로 재직할 바 있는 제리 화이트는 도슨 트로트맨이 신봉했던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운동의 비학문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를 전후로 출판부는 과학과 종교 분야에서 휴 로스(Hugh Ross) 저작들을 연달아 출간하면서, 오랜 지구론(Old Earth Creationism)을 복음주의 세계의 폭넓은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과학 분야의 지성운동과의 접촉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작가, 예술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역을 출범시킨다. 세계 기독교 출현 시대에 국제 본부는 복음의 일꾼들의 영적 세대 사역을 중심 가치로 두면서, 일상생활 영성에 대한 강조와 내면의 심리학, 경제, 경영, 과학, 예술, 지역계발, 사회적 화해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제자도의 개념을 수립해 가기 시작한다.⁸⁾

8) 2000년대 초중반까지 국제 네비게이트가 세계복음주의 운동 지형에서 초점을 맞추는 어젠다는 전통적인 강점인 멘토링과 일터 코칭, 젊은 지도자 계발 사역이었다. 한 가지 예로 2006년 젊은 지도자 모임(Younger Leader's Gathering, YLG-06)에서 국제 네비게이트 부회장 폴 스탠리(Paul Stanley)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로잔운동의 프로그램을 조율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총체적 제자도의 구체적 성격에 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 제자도 모형 안에서 자본주의 비즈니스 경영 모델을 촉진시키는 작업과 구조적 사회모순에 저항하는 투쟁의 정치 모델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관점은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채 남겨 있다. 이는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세계복음화 대회에서 사회참여와 “화해의 제자도” 그룹 공간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과 당대 구조적 불의에 대해 실제 액션플랜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물음인 것과 흡사했다. 다만 원칙적인 차원에서 “영성 형성” 논의가 강성 제자도로 대변되는 종교 활동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나머지 ‘도피처’로 정당화 되거나 백인 중산층의 문화소비 현상으로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는 합의는 형성되어갔다. 미국 팀 회장을 역임한 알란 앤드류스(Alan Andrews)는 신학 및 문화사상가(Theological And Cultural Thinkers) 그룹을 결성하면서, 달라스 윌라드, 폴라 풀러(Paula Fuller), 브라이언 맥클라렌(Brian McLaren) 등 인문학자, 현장사역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영성형성”과 세대 사역(Generational Ministry)은 인종차별, 빈곤문제 등 불의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Andrews, 2010).⁹⁾ 이와 관련해 4년마다 열리는 네비게이토 미 전역 컨퍼런스 2011년 주제는 “충돌하라, 변혁하라, 살아라(Collide, Transform, Live)”였는데, 주 강사는 국제정의선교회(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대표이자 『폭력국가』의 저자 게리 하우겐(Gary Haugen)이었다.

2. 총체적 제자도 패러다임으로의 재편성에 대한 한국 팀의 반작용

국제 네비게이토가 재정렬한 총체적 제자도 모델 작업은 한국 네비게이토의 반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창립 초기부터 자율적이고 토착화된 운동의 연합체로 시작한 국제복음주의학생회(IFES) 운동과 달리, 국제 네비게이토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팀 네비게이토의 “제자도” 이식 모델을 모범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 네비게이토가 수직 구조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9) 한편 군 사역으로 출범한 미국 팀이 국가주의 에토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균열의 틈이 엿보이는 한 가지 사례는 알란 앤드류스가 미국 팀 회장 임기를 마치고 미등록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 단체인 이웃선교회(Neighborhood Ministries)에서 활동하면서 보인 모습이다.

나타내자, 국제 네비게이트와 한국 네비게이트 비전 사이에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국제 본부의 제자도 모형에 대한 재고는 1960년대 미국식 “제자도”를 이식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했던 한국 팀 지도부에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선교단체의 외적 팽창과 관련해 서로 다른 “시간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한국 네비게이트 리더십이 국제본부의 변화된 정책을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네비게이트 운동이 한국에서 외적 확장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국 네비게이트는 일사분란하게 군사화된 근대화에 잘 적응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기관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학생운동권 이념을 비판했지만, 네비게이트는 80년대 남성적인 군사주의 문화가 내면화된 언더 써클 문화에 발맞추어 외부와 교류 및 소통보다는 선명한 내부 강령과 규율에 강조점을 두면서 급성장하고 있었다.¹⁰⁾

국제본부의 총체적 선교에 대한 한국 팀의 보수적 반작용은 과거 스코트와 메이홀 충돌 사건을 상기시킨다. 스코트의 총체적 제자도를 기각하고, 메이홀의 전통적인 경건주의 제자도 모형을 선택했던 국제본부는 1980년대 중후반을 경유하면서, 새롭게 총체적 제자도 모형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네비게이트가 국제본부와 “엇박자”를 나타냈다. 미국 네비게이트가 폭넓은 제자도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팀은 미국 네비게이트가 “영적” 재생산의 초점이 흐릿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 팀은 국제 본부의 정책 변화를 시대 조류에 굴복한 ‘변질’로 규정하게 된다. 1989년 한국 네비게이트 회장은 간사들에게 “세계의 기독교가 바뀌어 가고 있고, 세계 네비게이트 역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바뀌는 것과 변질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고, “초점을 잃지 말 것”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영혼 구원을 향한 세계복음화 비전 성취를 위한 헌신과 훈련, 그리고 단순성에 대한 강조였다(하진승, 1989/2000). 한국 네비게이트가 강조한 단순성은 존 스토틀(John Stott)와 로널드 사이더가 제시한 단순한 삶 - 복음전파 및 공화사역에 참여하기 위한 검소한 삶 추구 - 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헌신된 일꾼들을 배가하기 위해 선교사역을 단순화시키는 선별적 집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제본부와 한국 팀 사이의 긴장은 한편에서 보면 복음에 대한 상충하는 비전의 충

10) 80년대 학생운동권 내부 동학을 남성성과 군사주의 문화로 추적한 작업은 권인숙의 『대한민국은 근대화: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을 참조할 수 있다(권인숙, 2005).

들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면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탈 중앙집권화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한 국제본부가 복잡다단한 정치경제적 이슈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팀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다. 사실 국제본부의 총체적 제자도 모형 역시 일반론의 가치지향(orientation)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여는 공백으로 남겨 있었다. 국내외 간사 배출 면에서나 경제적으로 이미 독자적인 조직을 갖춘 한국 팀에 대해 국제본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나아가 한국 네비게이토는 1980년대 필리핀과 스리랑카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기능중심의 공역체(entity) 체제를 통해 해외선교를 본격화하고 있었다. 한국 팀은 국제 네비게이토 소속국가 중에서 주요 선교사 파송국 중 하나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 한국 보수 개신교계와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 한국 보수개신교회는 “선교 대국” 논리에 심취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1980년대 중후반 해외여행자유화 정책 이후 대우 김우중 회장의 세계경영이 주목받는 등 “세계화” 트렌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로잔대회에서 전파된 10/40 창 해외선교, 2000년까지 복음화 과업 완수 등의 논리는 당시 복음주의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공명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 네비게이토가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국제 본부와 한국 팀은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네비게이토 해외 선교가 본격화되던 시점에 국제 본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변희관, 2009). 일례로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코트디부아르 지역으로 파송된 한국 팀과 현지 불어권 아프리카 책임자 사이에서 한국식 선교문제로 충돌이 일어났다(Park, 2013: 25-28). “국제본부 측에서는 영어권 유럽계 선교사들의 보고를 한국의 보고보다 신뢰”했고, 내부 조율 과정에서 한국 네비게이토에게 복음화 비율이 낮은 인근 아시아 선교에 주력하기를 희망했다(변희관, 2009; Park, 2013). 국제 본부와의 충돌 이후 한국 팀 내부에서는 한국의 해외선교 자율성을 둘러싼 문제로 긴장이 조성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대 리더십 이양 과정에서 한국 팀의 내부 긴장은 더욱 심화된다. 조직 내부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원로 리더십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 증폭은 결국 해외선교를 담당하던 공역체 간사들이 중심이 되어 2000년 1월 세계로선교회를 독립적으로 세우는 결과

를 낳았다. 제자선교회 분립에 이은 세계로선교회 분립사건은 국제 선교기관의 내부조율과정과 리더십 이양 시기 파워게임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 두 분립 사건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기관의 에토스와 정책이 국내에 번역되는 과정이 일방적 단순 이식 모델로 설명되지 않고, 기존의 종교 문화 토양과 융합되는 방식으로 변용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1980-90년대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보수개신교계에 제자훈련 모델을 널리 확산시켰던 한국 네비게이토가 군사적 계급 논리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2000년대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공론화되고 있었다. 비판자들은 네비게이토가 과거에 고수해 온 남성적 돌진 방식의 훈육체계와 대표간사 중심의 위계구조가 ‘영적 오남용(spiritual abuse)’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비판 그룹 안에는 1970년대 초부터 한국 팀에서 활동하다 해외로 파송된 스리랑카 네비게이토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본부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들 일부와 명예훼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문제를 지켜보는 이들 가운데는 과거 시행착오 혹은 구조적 오류 때문에 사람들을 상하게 했던 부분을 투명하게 고백하고, 배움의 삶에 지속적으로 개방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본부 측이 외부 비평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강제를 앞세우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 본부가 주도한 민, 형사 고소 법적 공방은 무위로 끝났다(성낙희, 2012). 한국 팀 리더십이 관료화된 위계구조에 몰입된 훈육 체계를 보수해 갈지 새롭게 갱신된 제자도 모델을 나타낼지는 열려 있는 물음이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20세기 한국 군사화된 근대성 시대에 발흥한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 미국식 제자도 모델을 검토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네비게이토 선교회 형성과 국제화 과정을 추적했다. 도슨 트로트맨이 창설한 네비게이토는 20세기 미국 보수 개신교의 “제자도” 담론과 실천의 탄생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네비게이토 변천사는 또한 20세기 미국 근본주의-복음주의 “제자도”의 전개과정의 중요한 국면들을 보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초기 근본주의 단체로 출범한 네비게이토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정체성이 형성된 시기에 미국의 패권 논리와 함께 외부로 수출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주로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대학생선교회 등 외부기관에서 네비게이트 간사들이 활동하거나 네비게이트 리더십이 제자도 계발을 위한 간사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자도 모형이 전파되어 간다. 1960년대 초에는 2대 국제회장 론 세니 리더십 아래에서 네비게이트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간사 계발과 해외 선교 파송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1960-70년대까지 미국 네비게이트는 해외에서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간사 증폭을 위한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한다.

미국 네비게이트는 세계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대면하게 되는데, 세계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과 관련된 물음들은 은사주의 운동에 대한 입장, 선교단체 정체성과 지역교회와의 관계, 복음과 사회정의의 관계 설정 등이었다. 전통적으로 오순절 운동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 온 네비게이트 초기 리더십은 1950-60년대 은사주의 운동과 조우했을 때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 사용을 제한시켰다. 이는 일부 간사들이 네비게이트를 떠나는 요인이 되었고, 찰스 파라와 같은 이들은 네비게이트를 떠난 이후 은사주의 진영 내부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60-70년대 선교단체 정체성과 지역교회와 관계를 둘러싼 도전이 제기되었을 때 국제본부는 지역교회와 협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긴장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식의 이중구조론으로 응답했다. 선교단체로서 네비게이트 정체성 정립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리더십이 네비게이트와 접촉되기 전부터 영향을 받은 형제교회 전통을 전유해서, 네비게이트를 지역 교회화 작업을 도모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중후반에는 사회정의의 국면이 포함된 총체적 제자도로의 도전이 네비게이트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초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월드런 스코트가 간사 직에서 제명되는 등 1980년까지 네비게이트 리더십 내부 정치역학 안에서 사회적 고통을 껴안는 총체적 제자도 모형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경건주의 제자도 모델을 유지해 온 네비게이트 정책기조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세계 기독교 출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 네비게이트 제자도 패러다임의 전환 배경에는 선교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세계 기독교 시대에 지구촌 남반구 리더십의 영향력 증대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후반 제리 화이트 리더십 아래에서 국제 본부는 그동안 추구해 온 외면적 군사 훈련에 상응하는 제자도 모형과 반지성주의적이고 협소한 방식의 경건주의 모델을 지

양하고,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제자도 모델 개발에 나선다. 한편 총체적 제자도 패러디 임 안에서 세대사역을 추구하는 국제본부 방침에 관해 한국 팀은 전통적인 영적 재생산의 초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사회적 고통을 겪어오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제자도를 추구하는 국제본부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 방식을 선명하게 보수해 온 한국 본부는 2000년대 이후 도식화 논리에 함몰되고, 계급화에 따른 영적 오남용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네비게이트 형성 및 국제화 과정은 미국 근본주의-복음주의 세계에서 “제자도”의 신학적, 사회적 자리를 포착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한국 복음주의 운동 이해에도 일정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냉전 정체성 형성기에 미국의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무신론적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영적 방파제’ 역할 논리와 함께 미국 패권에 기초한 군사주의 에토스를 전파해 왔다(Weinstein and Seay, 2007). 미국적 기원을 가진 선교단체들이 한반도로 유입된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제자훈련 모델의 공과가 논의되고 있다. 미디어에 노출되진 않았지만 예수의 부름을 따라 걸어온 개인들도 있을 것이다. 영육의 세월 속에서도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 때로 남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 인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타자에게 내어주었던 개인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군사주의 제자도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영적 오남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체적으로 책임성 있게 응답하는 개인적 영성 형성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영적 재생산’ 매커니즘은 구성원들에게 희생제의를 요구하는 ‘인신공양’ 논리와 상응한다. 책임 있는 자리에서 비전을 명분삼아 조직의 안위와 자기현시욕구에 빠져 들어, 사람들을 상하게 한 모습은 뼈아프게 반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군부정권 시대 권위주의 레짐을 공고화시켜 온 사회적 측면 역시 점검되어야 한다. 일꾼들의 영적 세대(spiritual generations) 현상은 언제나 특정한 방식의 사회 구조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영적 비전을 주창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부조리 맥락을 은폐함으로써 기득권 논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향하는 세대사역이 있다. 이와 반대로 복음의 신비를 간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시대의 문제를 겪어오는 일꾼들의 세대사역 역시 존재한다. 후자의 세대사역은 혼돈스러운 내면과 세상을 외면하거나 도식화 논리를 동원해서 뒤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상사명(the Great Commission)”에 순종하는 삶은 복음

의 신비 안에서 신뢰하는 삶을 일구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곁을 타자에게 내어줌으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언하는 세대사역이다.

오늘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미국에서 유입된 군사주의 제자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비판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성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믿음의 선한 싸움”과 같은 용례는 참된 삶의 여정에는 대가가 지불되는 훈련이 동반된다는 점, 인생에는 분투하면서 진지하게 추구해야 할 소중한 그 무엇이 있음을 교훈한다. 참된 삶을 향해 순례하는 이들은 값싼 대용품(‘최악의 낙’)을 탐닉하기보다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일상의 영성을 가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또한 로마황제가 아닌 예수를 세상의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은폐된) 정교유착의 논리에 기대기보다 폭압적이고 착취적인 ‘제국’ 시스템과 불화하면서,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영적 세대를 이루는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다(사 58:6-12 참조).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인철 (2007).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 서울: 중심.
- 경향신문 1973. 5. 1일자 2면. “사랑의 기적으로 세계의 신화를...”
- 고직한 (1995). “교회가 본 선교단체 제자훈련의 약점과 강점.”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 권영선 (2001). 『아들람으로 가는 길』. 서울: 뉴스앤조이.
-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 서울: 청년사.
- 김진호 (2012). 『시민K, 교회를 나가다』. 현암사.
- 김진호 (2014). “한국 개신교 한 주류로서의 구원파 - 구원파와 ‘구원파’, ‘이성적 기획’의 침공.” 가톨릭뉴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1> (검색일: 2015. 10. 3.)
- 박영철 (1990).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발전, 교회발전을 위한 영성개발.” 『전국목회자세미나』. 별세목회연구원.
- 박용규 (1998).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 박준형 (2002). “한국모임의 걸어온 길.” 『열린 문 선교잡지』.
http://bupyoung.ipstime.org/?mid=board1&document_srl=462&listStyle=viewer&page=21 (검색일: 2015.10.3)
- 변희관 (2009). “믿음의 유산.” ENM 선교회소개.
http://enm.or.kr/01_about/about04.php (검색일: 2015. 10. 3)
- 성낙희 (2012). “네비게이트 비판한 간현준 씨, ‘무협의.’” 뉴스앤조이(2012년 3월 15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239> (검색일: 2015.10.3.)
- 양희송 (2014). 『가나안성도, 교회밖신앙』. 서울: 포이에마.
- 이재근 (2015). 『세계복음주의지형도』. 서울: 복있는 사람.
- 장규식·유관지 (2006). “군사 정권 기 한국교회와 국가권력 - 정교유착과 과거사 청산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서울: 당대.
- 하진승 (1989/2000). “한국 사역의 4가지 강조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진승 회갑 기념집』.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부.
- Abrams, D. (2001). *American Fundamentalists and Mass Culture. 1920-1940.*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Andrews, A. (Ed.) (2010). *The Kingdom Life: A Practical Theology of Discipleship and Spiritual Formation*.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 Barry, S. (1991). "UBF World Mission History." prepared on the occasion of Dr. Samuel Lee's 60th birthday.
http://history.ubfservice.com/chapter/sarah_barry_1991.pdf (검색일: 2015. 10.3)
- Bergler, T. (2012). *The Juveniliz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 Brouwer, S., P. Gifford, and S. Rose (1996). *Exporting the American Gospel: Global Christian Fundamentalism*. New York: Routledge.
- Bruns, R. (2004). *Billy Graham. A Biography*. Westport: Greenwood Press.
- Carpenter, J. (1980).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Fundamentalist Institutions and the Rise of Evangelical Protestantism, 1929-1942." *Church History* 49. 62-75.
- Chung, J. (2003). "The University Bible Fellowship: A Forty-Year Retrospective Evaluat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1(4). 473-485.
- Downing, J. (2005). Lorne Sanny and the Church at the Memorial Service at Glen Eyrie on April 3. 2005.
http://www.discipleshiplibrary.com/pdfs/lorne_sanny_more.pdf (검색일: 2015. 10.3)
- Downing, J. (2011). "An Interview with Jim Downing - Jim Downing. 75 Years as a Disciple-Maker." *Mission Frontiers* 33(1). 17-30.
- Fairservice, S. (2007). *Asia Legacy. Stories of Navigator Pioneers*. Singapore: NavMedia.
- Farah, Jr. C. (1979). *From the Pinnacle of the Temple*. Plainfield, N.J: Logos International.
- Glasser, A. (1989). "Interviews with Arthur F. Glasser." *Transcript. Collection 421 Billy Graham Center Archives*.
<http://www2.wheaton.edu/bgc/archives/trans/421t03.htm> (검색일: 2015.10.3)
- Hageman, A. (1995). "Reflections on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of the 1960's and Its Effect on My Life."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32(3).
- Hammond, S. (2010). "God's Business Men." Entrepreneurial Evangelicals in Depression and War.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Hankins, Jr., J. (2011). "Following up: Dawson Trotman, the Navigators, and the Origins of Disciple-making in American Evangelicalism, 1926-1956." Ph.D

-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Hunsicker, D. (1998). “The Rise of the Parachurch Movement in American Protestant Christianity During the 1930s and 1940s: A Detailed Study of the Beginnings of The Navigators, Young Life, and Youth for Christ International (Fundamentalism).”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Kalu, O., D. Lyons, and J. Ridgway (2013). Responding Biblically to Poverty. Corruption and Injustice <http://www.respondingtopci.com/> (검색일: 2015.10.3.)
- King, D. (2012). The New Internationalists: World Vision and the Revival of American Evangelical Humanitarianism. 1950 - 2010. *Religions* 3(4). 922-949.
- Lahr, A. (2007). *Millennial Dreams and Apocalyptic Nightmares: The Cold War Origins of Political Evangelic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enesch, M. (2007). *In the Beginning Fundamentalism, the Scopes Trial, and the Making of the Antievolution Movement*.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Loveland, A. (1996). *American Evangelicals and the U.S. Military 1942-1993*.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MacLeod, A. (2007). *C. Stacey Woods and the Evangelical Rediscovery of the University*. Downer's Grove: IVP. Academic.
- Marsden, G. (1990). *Understanding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 홍치모 역 (1998). 『미국의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이해』. 서울: 성광문화사.
- Moore, R. (1986). *Religious Outsiders and the Making of Americ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ll, M. (2009). *The New Shape of World Christianity: How American Experience Reflects Global Faith*.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 Padilla, C. (2011). The Future of the Lausanne Movement.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5:2. 86-87.
- Park, C. (2013). Contribution of Every Nation Mission: Opportunities for ENM Missionaries in Africa. MA Thesis. University of Pretoria.
- Putney, C. (2001). *Muscular Christianity: Manhood and Sports in Protestant America 1880-192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andall, I. (2015). “The 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in Brian Stiller (Ed.) (2015). *Evangelicals Around the World: A Global Handbook for the 21st Century*. Thomas Nelson.

- Sanny, L. (1974). *Fundamentals of Our Ministry*. Colorado Springs : The Navigators.
- Schäfer, A. (Ed.) (2013). *American Evangelicals and the 1960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Scott, W. (1980). *Bring Forth Justice*. 강선규 역 (1988).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서울: 두란노서원.
- Scott, W. (2006). *Double Helix. A Missionary's Odyssey*. Unpublished Manuscript.
- Seungsook M. (2005).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이현정 옮김 (2007).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 하나의 문화.
- Showalter, N. and T. Yichao. (2010). "Billy Graham, American Evangelicals, and Sino-American Relations."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8(4).
- Skinner, B. (1974). *Daws : the story of Dawson Trotman, founder of the Navigators*. 네비게이트 출판부 역 (2006). 『도슨 트로트맨』.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부.
- Stanley, B. (2013). *Global Diffusion of Evangelicalism : the Age of Billy Graham and John Stott*. 이재근 역 (2014). 『복음주의 세계확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CLC).
- Stokes, D., J. Gomoll, and R. Goldstone with R. Ennis and C. Weddle. (2006). "Historical Look." *The Navigators - Who Are We Becoming? Living and Giving Our Passion*. Navigators National Training Team.
- Svelmoe, W. (2008). *A New Vision for Missions: William Cameron Townsend, the Wycliffe Bible Translators, and the Culture of Early Evangelical Faith Missions. 1896-1945*.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The Navigators. (2009). *Amazing Grace: Amazing Hope - the Navigators' 75th Anniversary*. Colorado Springs: NavPress.
- Tocqueville, A. (1835). *De la democratie en Amerique* 임효선·박지동 역 (1997). 『미국의 민주주의 1, 2』. 서울: 한길사.
- Trotman, D. (2008). *Born to Reproduce*. Colorado Springs: NavPress.
- Turner, J. (2008). *Bill Bright & Campus Crusade for Christ: The Renewal of Evangelicalism in Postwar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einstein, M. and D. Seay, (2007). *With God On Our Side: One Man's War Against an Evangelical Coup in America's Military*. New York: Thomas Dunne Books.
- White, J. (2002). *Making Peace with Reality: Ordering Your Life in A Chaotic*

- World*. 전의우 역 (2003). 『현실과의 화해』. 서울: 씨 뿌리는 사람.
- Willard, D. (2010). “Discipleship.” in Gerald McDermott (ed.) (2010). *Oxford Handbook of Evangelical Th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nter, R. (1974).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Missiology* 2(1). 121-139.

Abstract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20th Century American Fundamentalism–Evangelicalism Discipleship with the reference to the History of Navigators

Min–Seok So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issues regarding form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Navigator movement, as part of a study of the influence of American evangelical subculture on the post-war Korean conservative evangelicalism. Navigator movement, launched by the early 20th century fundamentalists in America, played pivotal role in birth of conservative “discipleship”.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was the beginning of internationalization of Navigator movement in concert with the logic of American hegemony.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he Navigator headquarters had faced various challenges, which followed a paradigm shift in disciple-making.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Navigators international is a reference to understand the American origin of the birth of post-war Korean evangelicalism.

Key Words: American influence on the Korean evangelicalism, Navigator discipleship training, militarized modernity, global Christianity